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9~8/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칸니 명상 : 아나빠나삿띠와 위빳사나수행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3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청백의 108요담)	무진 황경환	현대불교신문
4	정선 맛지마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6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9	정혜결사문 : 선정과 지혜로 세상을 밝혀야	보조지눌/원순스님	법공양
10	방거사 어록 시 역주(선어록총서3)	강승욱	운주사

책세상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 만져 보거라”



삼소굴 법향

경봉문도회 엮음 / 통도사 극락암 발행

백산출판사 펴냄 / 비매품



문중과 직계 제자 · 손상좌 등
출 · 재가자 50명 인연담 소개
사진 · 연보 등 수록한 법공양
“경봉 알리는 자료로 활용되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큰스님 가시고 난 뒤에 스님이 너무나 뵙고 싶으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스승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1982년 7월 17일,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선지식 경봉(1892~1982 · 사진) 선사는 그렇게 세연을 접었다. 경봉 문도회는 경봉 스님 열반 38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애를 인연담으로 엮은 〈삼소굴 법향〉을 출간했다.

〈삼소굴 법향〉은 경봉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제방 스님, 통도사 문중 스님, 직계 제자 스님, 직계 손상좌 및 재가불자와의 인연담을 소개한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비롯해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원로의원 인환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김선근 한국불교학회 회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강수길 숙우회 대표 등 재가불자를 포함한 50여명과의 인연담을 통해 경봉 스님의 생애를 다시 한 번 조명한다.

‘삼소굴 법향’ , 책의 제목 그대로 선지식이 머물던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은 늘 법향으로 가득했다. 주인이 그랬고 선사를 찾은 객들도 그랬다. 주인의 깊은 모습과 맑은 언어 앞에서 대중은 깊은 법향에 물들었다. 책 〈삼소굴 법향〉은 한때 삼소굴의 주인으로 살았던 경봉이라는 선지식이 법향으로 물들인 인연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자비한 어머니와 같았던 큰스님, 혼란기의 위대한 뱃사공과 같은 큰스님, 선교를 겸비한 희유한 도인, 현대적인 언어로 불교를 설명한 선각자…. 생전에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대중은 저마다 한마디씩 노장의 생애를 정리한다. 경봉 스님의 생생한 일상과 선지식의 법문으로 삶이 달라진 이야기 등 경봉 스님을 바라보았던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경봉 스님께서는 굉장한 신통력까지 있으셨어요. 유머감각이 있으셔서 곁에 있자면 사소한 우스개도 참 즐기셨지요. 속담에도 ‘나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 는 속담이 있는데, 이 책을 만드는 것이 늦은 것은 큰스님 제자로서 성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가 직접 해야 할 일을 후학들이 해서 저는 기분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봉 스님에 대한 모든 것을 모으고 연구를 많이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경봉 스님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던 제자 명정 스님은 책에서 말했다. 〈삼소굴 법향〉은 한 권의 책이기 이전에 ‘마음’ 이다. 한 시대의 어른이었던 선지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다. 편찬위원장 법산 스님은 “책 〈삼소굴 법향〉은 비매품입니다. 사고파는 책이 아니라 ‘모시는 책’ 입니다. 스님의 법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되고 스님의 승기가 이 사회를 새롭게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고 했다. 책을 열면 바로 경봉 스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도 스님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렇게 스님과 스님의 생애를 모시는 책이다. 책은 경봉 스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연보 등을 실었으며 법공양으로 출간됐다.

경봉 스님은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간화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통도사 가람 수호와 교화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스님은 근현대 불교개혁 과정에서도 정신적인 중심이 되었으며, 당대 고승들과의 서신 및 법거량을 통해 독자적인 선풍을 남겼다. 보조 지눌의 선교일치와 간화선 사상을 계승했으며, 용성과 한암의 선교겸수, 돈오점수 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실천했다. 보조, 휴정, 경허로 이어지는 회통불교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선교겸수, 선정쌍수 등의 회통적 특징을 발휘했다. 간화선 전통을 대중화하여 생활선적 간화선풍을 펼쳤으며, 수행전통을 회복하고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다양한 대중법회를 개설함과 아울러 선화와 선묵 전시회를 통해 중생교화와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통도사 강원 강주와 주지, 선학원 이사장과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주석하면서 대중교화에 힘썼다. 1982년 7월 17일 세수 91세, 법랍 75세로 원적에 들었다.

인류 공동 가치 ‘한국 산사’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

주수완 지음 / 조계종출판사 / 1만7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아홉 곳의 사찰을 소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 인정되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은 1995년에 해인사 장경판전과 불국사 · 석굴암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2018년에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일곱 곳의 산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으로 등재됐다. 우리의 불교문화유산은 그 시대의 건축문화를 통해 예술성과 문화사적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확인받았으며, 또한 천년이 넘는 긴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도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승원문화인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사찰 아홉 곳을 소개하는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은 저자인 주수완 교수가 사찰을 답사하고, 스님들을 만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순례기다. 각 사찰들이 담고 있는 불교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해석했으며, 이와 함께 산사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사진을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유산 사찰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치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종과 나이는 물론 시대를 넘어 인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일 때 ‘가치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산사들을 다시금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한국의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한국불교가 반도를 벗어나 세계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한다. 산이 있으면 으레 절이 있다는 사실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대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물론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숲을 거닐며 그 속에 자리한 사찰에 잠시 머무르기만 해도 말과 생각 이전에 몸으로 느껴지는 청량한 기운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사찰의 역사와 의미 등을 알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은 그동안 우리가 산사를 찾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준다.

사찰의 시작인 일주문에서부터 사천왕, 석탑,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이유 없는 것이 없다. 산사에서는 시선을 두는 어느 곳에나 그것을 조성한 선조들의 지혜와 배려가 담겨 있다. 책은 이론이나 현학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단순하게 풍광을 소개하는 순례기가 아니다. 절을 찾는 보통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해설을 하며 그동안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산사의 의미를 들려준다.

박재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영주 부석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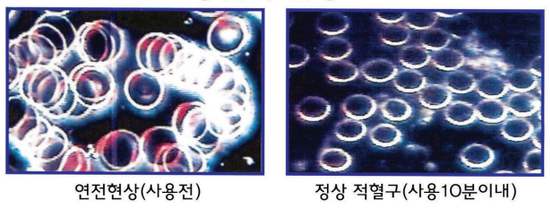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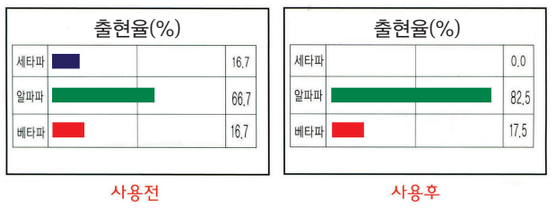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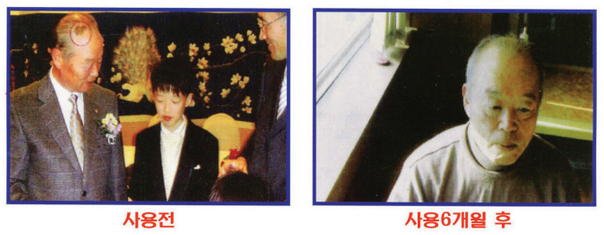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